

“비전 만들고 제시...지역 발전 선순환 체계를”

김영록 지사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대도약 이뤄내야” 통합의대·전남특별자치도 강조...광주·전남 통합도 언급

김영록 전남지사는 3일 “지난 1년 빛나는 성과가 많았다.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비전을 만들어 도민에게 제시하고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를 지키도록 노력해 지역 발전을 일구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12월 정례회를 통해 “지금까지 어렵사리 추진한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모두가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직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비전을 이루고 전남의 역사적 대도약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 ▲예산 규모 12조9천억원 2018년(7조 원대) 이후 매년 평균 14% 성장 ▲도민 소득 17-19위에서 9위로 상승 ▲목포대·순천대 통합

합의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추진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 인구 청년이민국 신설·만원주택 추진·출생 기본수당 추진 등을 꼽았다.

이어 그는 “빛나는 지방시대를 위해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의사가 중앙에 반영되도록 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가 돼야 한다”며 “대구·경북이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건이 되면 실질적 권한을 갖는 광주·전남 대통령 시도를 추진, 지역 발전을 견인하게 되길 바란다”고 광주·전남 통합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한 목포대·순천대 통합 합의에 대해 김 지사는 “중앙에서도 대단하다, 축하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전국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공감과 소통을 위한 '12월 정례회'에서 도청 주요성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적 반향을 일으켰다. 전남도민이 염원한 국립의대 설립 길을 튼 두 대학의 쾌거”라며 “통합대학교와 국립의대 신설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했으니 내년 3월까지 정원 200명 배정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면 도민 숙원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지역 벤처 창업 육성 노력

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미래 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가 관건으로 고흥 우주발사체국가산단 MOU,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앵커기업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잘 되고 있다”며 “자생적 기업을 키우고 그 기업이 전남 미래를 선도하도록 벤처창업을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자”고 독려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청년 층이 떠나지 않고 타 지역의 청년 유입까지 이끌어 내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김 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과 동포들이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케이팝과 케이드라마, 케이푸드와 달리 정진적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국가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며 “전남의 역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학박람회, 문학관, 노벨문학도시 등을 위해 노력하는 장흥군과 협의해 관련 분야를 잘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실무회의 13일 열린다

광주시·전남도·국조실·국방부·행안부 참석...무안 포함 여부 논의중

광주·민·군 통합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범정부협의체 실무회의가 오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다.

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 전남도, 국무조정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실무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동향 파악과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전 후보 지역인 무안군, 해남군, 함평군, 고흥군의 회의 참여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광주시와 국조실은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관련 기관이 협의 태의블에 나

와 머리를 맞대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언론과 국회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데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공항 이전 관련 범정부 협의체 재가동을 요청한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추진된다.

그동안 광주시는 민·군공항 무안 이전을 위해 소음 토론회 등을 하며 지역민 설득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상생발전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으며 범정부협의체가 재개됨에 따라

광주시는 공항 이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보고 무안군민에게 직접 홍보하는 열린대화방 운영과 미래비전 토론회, 여론조사, 12월로 제한한 데드라인을 철회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전향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는 만큼 이번 회의가 성사된 자체로 큰 의미”라며 “무안군을 포함한 이전 후보지역 모두를 회의에 포함할지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무회의에서 이전 대상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전진이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광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특강

광주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와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투명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특강을 열었다. ‘자율적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특강에선 자율적 내부통제

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문호승 한국내부통제연구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목적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감사가 문제를 지적하는 사후적 조치라면 자율적 내부통제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라며 “내부통제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도, 대설·한파 피해 최소화 총력

내년 3월까지 ‘자연재난 대책 기간’ 운영

전남도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따른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유관기관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업 간담회를 3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도 13개 협업부서와 광주 지방기상청, 한국도로공사, 전남지방경찰청 등 11개 유관기관이 참석해 겨울철 대책 기간 도민 안전을 위한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키로 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기관별 역할과 상호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올해 대설·한파에 대비해 ▲선제적 상황관리 총력대응 ▲취약계

층에 빈틈없는 안전대책 ▲도로 맞춤형 제설대책 등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해 운영한다.

이정국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겨울철 재난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야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보 시 긴급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시설물을 사전 점검해 피해 예방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5·18 기념일 대중교통 무료 예산 삭감

광주시의회가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도시철도·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내 예산안 심의에서 5·18 기념일 시내버스 지원 예산 2억6천800만원과 도시철도 지원 예산 5천100만원을 삭감했다.

행자위는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며 연간 1천400억원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도시철도도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만큼 추가 지원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사업의 경우 민주인권평화국이 아닌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운영 통국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은진기자

▶1면 ‘예비마을기업’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와 시·군은 별도 지침 변경 없이 내년에도 평년과 비슷한 규모의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선정을 위해 3억2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마을기업 숫자 확대 대신, 기존 기업 활성화·고도화 등 정책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휴업·미응답 의심 업체는 내년 초까지 현장 실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영세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규 마을 진입 시 지원금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 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화정동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275㎡ 3층건물
급매11억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등 최적
급매3.3당1,200만원(조정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도로점 일반공업지역
9,900㎡(면적추가또는 분할도가능) 급매30억
***국내최대등굴관광지(예정)입구 투자가치도 최고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